



FOCUS NEWS

2024년 상반기 국내 정책세미나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최



5월 22일 (수)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소의 주최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와 한국은행 성원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손혜림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안태현 교수, 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

대 경제대학 교수는 혼인 가정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와 같이 비혼 가정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철 교수는 ‘동반가정 등록제’와 같은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동반가정으로 등록된 이들에게)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의료적 처치에 있어 보호자 역할을 부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의 복지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 청약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가정 형태가 혼인이든 비혼이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항상 부부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 제54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제54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한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 (오른쪽에서 네 번째)〉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가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경영 논문상인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매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제·경영학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1971년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54회째

를 맞이했다. 시상식은 4월 12일(금)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 센터에서 열렸다.

이윤수 교수는 ‘전자상거래와 지역 노동시장: 소매업의 종말이 임박했는가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s: Is the ‘Retail Apocalypse’ near?)’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한국의 지역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성장이 어떻게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지에 대한 커다란 세계 연구 흐름에 공헌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해당 연구는 본교의 전현배 교수, 주하연 교수와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지수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역 경제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23년 9월호에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다.

해당 논문은 한국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 확산이 소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300억건에 달하는 한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모아 온라인 쇼핑 침투율을 측정하고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를 연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 모두에서 오프라인 소매

업 고용 감소를 가져왔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음식점 같은 곳의 고용이 늘어 오프라인 고용 감소를 상쇄했음을 보였다. 이윤수 교수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통계청 자료 등과 씨름해온 저와 동료 연구자들의 성과를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하며, 향후 연구활동에 대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구조조정과 기업 동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과 양현주 교수,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3년, 총 2억4천만원)



〈양현주 교수〉

양현주 교수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과제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가계 부채와 투기에 대한 경제적 실증분석’이며 총 3년간 2억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양현주 교수는 이 연구과제를 통해 Yale 대학교 경

제학과 Costas Arkolakis 교수, Brown 대학교 경제학과 Spencer Kwon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양질의 빅데이터와 해외 우수 경제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영끌과 빚투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년의 영끌과 빚투 행동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개인 단위 가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끌과 빚투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끌과 빚투 행동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분석하여 이를 통해 영끌과 빚투 등 과도한 개인의 risk-taking, 투기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학과 홍영진(지도교수 김인경) 석사과정생, 관정국내대학원 장학생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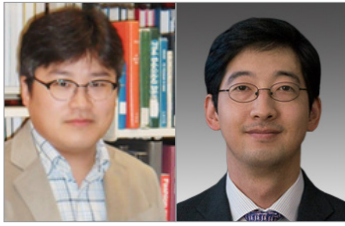


〈홍영진 석사과정생, 김인경 교수〉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관정국내대학원 장학생에 홍영진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인경)이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우수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국내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국외 유학생들을 대상

으로 약 5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여 학기당 600만원의 장학금을 최대 4학기 동안 지급하고 있다. 홍영진 학생은 김인경 교수의 지도하에 실증 산업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도교수인 김인경 교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김규일 교수와 함께 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이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끼치는 영향을 한국의 라면 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들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광고비 지출 혹은 가격조정을 통한 효과와 비견되는 효과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경제학과 양현주 교수와 정국모 교수, 서강 시그니처 연구분야 선정



〈 정국모, 양현주 교수 〉

정국모 교수와 양현주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팀 (팀장 정국모 교수)이 본교에서 선정하는 서강 시그니처 연구 분야에 선정되어 본교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다. 본교는 서강 시그니처 연구 분야 선정을 통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본교에서 총 두 개의 연구팀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정국모-양현주 교수 연구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팀」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학교 측은 본 연구에 대해 사회적 수요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높고, 참여 교수의 역량과 팀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성과로 인해 해당 연구팀과 경제학과는 본교로부터 전임교원 신규임용 T/O 배정 등 다각도의 행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대학 박정수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 경제대학 박정수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박정수 교수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22년부터 새로운 국정 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정수 교수는 2023년 12월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거시금융분과에서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지난 2015~2017년 위원 활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활동이 된다.

곽노선 교수, 한국금융학회 제34대 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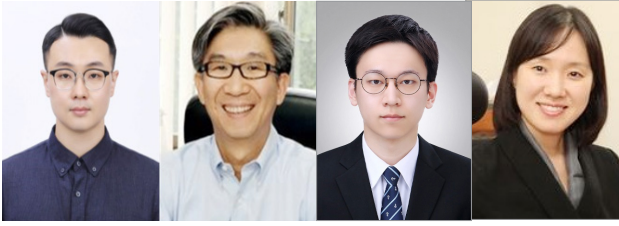


〈 곽노선 교수 〉

곽노선 교수가 제34대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학회는 화폐·금융·증권 및 금융기관경영에 관한 연구와 정책분야의 현안

과제들을 토론함으로써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금융 관련 경제 및 경영학자 900여 명의 개인회원과 100여 개의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연구 및 금융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산업조직연구회, 금융정책연구회, 국제금융연구회, 가상화폐연구회, DSGE연구회, DGP연구회 등 6개의 연구회가 금융학회 산하 연구회로 이들은 활발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는 또한 계간으로 등재 학술지인 '금융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본교 박사과정생들, 연구역량 강화사업 선정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선정



〈 이승일 박사과정생, 박정수 교수〉 〈 고동균 박사과정생, 김윤정 교수〉

본교에서 운영하는 2024학년도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이승일 박사과정생(지도교수 박정수)과 고동균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윤정)이 각각 선정되었다. ‘연구중심대학원육성 지원사업’은 대학원 연구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본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일 학생의 연구주제는 “산업별 ICT 활용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동균 학생은 ‘자본 리쇼어링과 기

업의 투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주제를 통해 같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각 학생은 본교로부터 2024년 3월부터 1년간 연구 인건비 학술 활동 지원비로 총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고동균 학생은 한국연구재단 주관하는 2024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기도 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 구축 및 학술연구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동균 학생은 총 1년간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동균 학생은 미국구조계획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주제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금,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



6월 3일 (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에서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GN관) 서강경제 리셉션홀 (511호)에서 진행됐다. 수여식에

는 박정수 경제대학 학장, 이진권 경제대학 학과장, 김윤정 경제학과 교수, 안태현 경제학과 교수, 이철순 경제대학 총동문회 회장, 황인기 총동문회 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등록생의 5% 내외에서 선정되는 우수한 성적의 Dean's List 학생들과, 1% 내외의 성적 최우수 학생들에게 각각 장학증서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김영훈 장학금은 대학원생이 연구에 더욱 힘써 정진하도록, 박사과정생에게 수여되었고, 김영민 장학금은 학부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학부생들에게 수여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진로 및 학교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춘계 경제정책세미나 개최



5월 11일 (토) 쉐닝톤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에서 2024 경제대학원 춘계 경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박정수 원장,

주하연 부원장, 김홍균 교수, 이영훈 교수, 이강오 교수, 김경환 교수, 허준영 교수, 곽준희 교수가 경제대학원 원우 및 동문과 함께 이날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특별히 ‘의료개혁: 의사증원은 필수적인가?’라는 주제로 경제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해당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는 경제대학원 67기 김의현, 김상아, 허경, 김현중, 고재연, 김경근 원우가 참여하였다. 이후 순서로는 김경환 교수님의 ‘부동산, 나라경제, 세계경제’라는 주제의 초청 특강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원우들이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와 만찬으로 2024년 춘계 경제 정책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신임교원 인터뷰 : 백예인 교수



〈백예인 교수〉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학기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합류하게 된 백예인입니다. 저는 2019년

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에서 2년 간 조교수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년 반 동안 부연구위원으로 일하다가 좋은 기회로 이번 학기에 서강대학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받을 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서강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자로서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계량경제학이고, 박사 학위 논문은 거시 및 금융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계량 방법론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형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가 일어나는 시점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거시금융 데이터의 변화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사용한 거시경제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머신러닝을 비롯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이론 연구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부 두 과목(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1)의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량경제학 관련된 과목과 대학원 수업으로 개설될 AI 거시 과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AI거시 수업은 새로 개설되는 과목이라 아직 커리큘럼을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머신러닝을 이용한 거시금융 예측과 관련된 최신 연구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학부를 정보산업공학과로 입학해서 2학년을 마친 후 응용통계학과로 전과하게 되었는데, 경제학까지 이중 전공하면서 전공 요건을 다 채우느라 매 학기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전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저만의 자산이 되었지만, 전공 수업을 듣느라 바빠서 동아리 활동을 금방 그만둔 것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활동이나 에피소드는 없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 특히 계량경제를 세부 전공하시고 경제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래 전공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는 있었지만 한 분야에 집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계학을 전공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절학기로 수강했던 경제학원론이 재밌어서 이중 전공을 할 생각으로 전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니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유학을 염두하고 경제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계량경제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통계학 전공 영향도 있지만, 경제학 연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방법론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어 계량경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속하지만 경제 이론을 도출하고 검증하는데 수학과 통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과 통계에 매몰되기 쉽지만, 이것은 경제학에서 활용하는 도구인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량경제학에서 배우는 방법론들의 목적, 즉 경제학의 어떤 질문들을 대답하는데 쓰일 수 있는지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 각자마다 처한 상황과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 중에 아직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반겨주지 않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진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소소한 것이어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이나 전공이 아닌 수업을 듣는 것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모든 경험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결정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



(이용우 학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SU)로 유학 가는 이용우입니다. 신입생 때 OSU로 유학 가는 선배님이 글을 보고 첫 학기부터 대학 수학 대신 미적분학 수업을 듣다가 삼각함수 미분이 매번 틀려 고생했던 적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같은 대학

으로 유학을 가는 날이 오다니 신기합니다. 성실, 계획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라 누가 이런 글을 도움을 받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두서없는 글을 재밌게 읽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분야는 이론 분야이기 때문에 실증 분야의 학생이라면 준비과정이 저와 사뭇 다를 것임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경제학을 공부하고는 싶었지만, 원론 수업은 고등학교 때 대부분 공부했었던 내용이라 큰 흥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남는 시간 로올라 도서관 2관 4층에서 베버, 짐멜, 데이비드 블루어 등의 텍스트를 읽었는데 사회의 토대를 파헤친다는 느낌이 재밌었지만, 보다 서로 간의 합의가 된 토대 위의 사회과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의 샛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그랬듯 진화게임이론에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분석철학 및 인공지능의 기초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이유로 수학과 복수전공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추후 이론경제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좋은 경험은 다양한 책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런저런 일에 치여 쉽지 않으니 저학년 때 많은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복학 후 게리 베커, 장 티롤 등 거장들의 논문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경제학이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구나 하면서 놀란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거장들의 번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번뜩이면서 재밌었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논문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부분이 있고, 거장들이기 때문에 그 장점의 함의를 모두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흥미와 능력의 사이 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좋아했던 내용이랑 지금 연구의 최전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는가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뜻이 있다면 그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에 뜻을 품은 사람이어도, 매 순간 모든 공부가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히는 개념이 있으면 하루 이를 걸러 이해한 적도 많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이해한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에도 그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면서든 계속 실험적 과제를 생각하던 일,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는 일, 술 마시면서 읽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등 모두 겪고 나니 한편으론 제 적성이랑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지간한 고집이 없었다면 미시이론을 택하지도 않았지만, 석사 논문은 제 연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 혼자 힘으로 제가 하고 싶은 토픽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생각보다 진전이 되지 않아 유학을 미루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겨 1주일 정도 학교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면 강의실 칠판을 멍하니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웃기긴 하지만 그 작은 시간 동안 반년 넘게 쌓지 못했던 제 논문의 기초 토대가 대부분 구축되었고 그걸 토대로 논문을 쌓아 갔습니다.

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더디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 맥주 한두 캔씩 먹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뜬금없는 아이디어와 함께 잠에서 깨곤 해서 카톡에 메모하고 다시 자는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물론 95%는 깨어나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술주정인지 잠꼬대인지 구분이 안되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간혹 나머지 5% 덕분에 아이디어가 구축이 되고 논문이 구성되었습니다. 반년 정도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몸이 아프던, 그렇지 않던 술에 취하던, 그렇지 않던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의 관념을 쥐고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 논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쥐다 보니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던 한해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대책 없이 산다고 여기저기 욕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속에 있는 여러 우연들 속에서 참 많은 위안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우연들이 제가 계획했던 어떤 필

언보다도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짧은 공간이기에 모두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신 김영철 교수님, 엄하시지만 늘 알게 모르게 챙겨주시는 이진권 교수님, 쓴 조연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종재 교수님, 항상 존중으로 대해주셨던 전성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때 재밌는 이야기로 새벽

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정국모 교수님, 이성원 교수님, 김인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학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먼저 연락해주고 응원해주었던 22학년 후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서리 경제학회 및 대학원에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I



〈김유빈 학생〉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 Brown University에 경제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김유빈입니다. 저도 처음 유학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정보를 얻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각종 칼럼과 후기를 찾아 읽어보았었고, 그것들

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작년에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고 감사하게도 여러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제 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되면서 충분한 진로 고민 없이 졸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에 서강대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입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석사 과정 초반에는 세부 전공을 정하고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서강대에서 만난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힘을 북돋아주며 지지해주었고, 수업을 수강한 교수님들께서도 상담 요청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도 참석하여보고, 리딩그룹에도 참여하면서 연구 경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잘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가 흥미로운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계량경제학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도 입시이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움을 넘어 이러한 경험들을 지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서강대에 남아 이 경험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것은 저의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지원하는 전공에서 요구되

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것에 기반하여 석사를 갖 마친 제가 어느 정도를 했을 때 교수자인 admission committee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질지를 고민해보고 이를 저의 SOP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연구를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완성된 지원자'라는 과대포장 보다는 '연구자로서 첫발을 떤 때' 때문에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임을 이야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학 준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멘탈관리입니다. 어느 날은 여러 학교를 붙으면 어디로 결정을 하지?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어느 날은 지원한 학교에 다 떨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의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모두 이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특히 지도교수님과 자주 만나며 귀찮게 굴었는데요. (이성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유학 지원에 대해 학생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저에 대해 제일 잘 알고 평가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강대에서 보내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석사로 입학했던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서강대가 좋은 환경이었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후배에게 먼저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선배님들과 유학을 준비하는 내내 옆에서 든든히 방향을 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동정

◎ 경제학부 교수 1년간(2023.1.1. ~ 현재) 주요 연구 업적 (국제학술지)

- 우수국제학술지 등재논문

Taehyun Ahn (2024).

“Minimum Wage and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Evidence from South Korea,” *Labour Economics*, forthcoming.

Taehyun Ahn and Jiyeon An (2024).

“Influence of Social Pension on Well-Being and Health of the Rural Elderly: the Case of South Korea,”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forthcoming.

Hyunbae Chun, Eunjee Kwon and Dongyun Yang (2024)

“The Rise of E-Commerce and Generational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from COVID-19 in South Kore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Jaehong Choi, **Hyunbae Chun**, **Jung Hur**, and Nyeong Seon Son (2024).

“China Syndrome and Local Labor Markets: Sectoral Reallocation and Job Quality,” *The World Economy*, forthcoming.

Hyunbae Chun, **Hailey Hayeon Joo**, Jisoo Kang and **Yoonsoo Lee** (2023).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s: Is the “Retail Apocalypse” near?,” *Journal of Urban Economics*.

Hyunbae Chun, **Hailey Hayeon Joo**, Jisoo Kang, and Soo Hyung Kim (2023).

“Protecting Small-Scale Enterprises: Evidence from the Korean Ready-Mixed Concrete Industry,”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Hyunbae Chun, **Jungsoo Park**, Kyoji Fukao, Hyeog Ug Kwon (2024)

“Why Do Real Wages Stagnate in Japan and Korea,” *Asian Economic Papers*.

Jihwan Do, **Jung Hur**, Sung-Ha Hwang, and Larry D. Qiu (2023).

“Tariff Diversity and FTA Network,” *Review of World Economics*.

Yonggeun Jung and **Jung Hur** (2024).

“Investing Abroad, Transforming at Home: An Empirical Study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Korean Manufacturing's Servicification,” *East Asi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Seong-gwan Kim and **Jung Hur** (2024).

“Trade Costs and Modes of Reshoring: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Nayeong Kim, **Hailey Hayeon Joo**, Brian Hong Sok Kim, and Junghoon Moon (2024). “Development of New Frozen Food Products: The Effects of Product Attributes and Marketing Factors on Sales of Frozen Cooked Rice and Dumplings,” *Journal of Sensory Studies*.

Athanasios Geromichalos and **Kuk Mo Jung** (2024).

“Heterogeneous Asset Valuation in OTC Markets and Optimal Inflation,”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Kuk Mo Jung and Ju Hyun Pyun (2023).

“A Long-Run Approach to Money, Unemployment, and Equity Prices,” *Economic Modelling*.

In Kyung Kim (2023).

“Country Image and Consumer Choice: The Case of the Bee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In Kyung Kim (2024).

“Consumers' Preference for Downsizing Over Package Price Increase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In Kyung Kim and Kyoo il Kim (202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 Choice: Lessons from the Milk Boycott,” *Management Science*, forthcoming.

Jaeho Kim and Drew Creal (2024).

“Bayesian Estimation of Cluster Covariance Matrices of Unknown Form,” *Journal of Econometrics*.

Jinwon Kim and Juchool Moon (2024).

“Congestion and Scheduling Preferences of Car Commuters in California: Estimates Using Big Dat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Jinwon Kim and Dede Long (2024).

“Working From Home, Commuting Time, and Intracity House-Price Gradi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Young-Chul Kim and Doojin Ryu (2023).

“Segregation, Education Cost and the Group Inequality,” *Economics*.

Seul-Ki Kim, and **Young-Chul Kim** (2024).

“Single-Sex vs. Coeducation: Can Schooling Type Affect Over- and Underweight Health Risks?,” *Applied Economics Letters*.

Seul-Ki Kim, and **Young-Chul Kim** (2024)

“Single-Sex vs. Coeducational School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of Middle School Students,” *Applied Economics*.

Jinyoung Yu, **Young-Chul Kim**, Doojin Ryu (2024).

“Left-Digit Biase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Journal of Futures Markets.

Yun Jung Kim and Mei Quan (2024).

“Financing the R&D investment of Chinese Firms: State-Owned Versus Private Firms,” *Applied Economics*.

Yun Jung Kim and Noh-Sun Kwark (2024).

“Changes in Inflation Dynamics in Korea: Global Factor, Country Factor, and Their Propagatio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orthcoming.

Jun Hee Kwak (2024).

“Individual Investor Trading and Stock Retur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Korea,” *Finance Research Letters*.

Jun Hee Kwak (2024).

“Sectoral Credit Allocation and Interest Rate Spreads Worldwide,” *Applied Economics Letters*, forthcoming.

Sungwon Lee (2024).

“Partial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for Conditional Distributions of Treatment Effec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Rodney Fort and **Young Hoon Lee** (2023).

“Division Play and Outcome Uncertainty in Sports Leagues,” *Journal of Sports Economics*.

Hayley Jang, **Doyoung Kim and Young Hoon Lee** (2023).

“Uncertainty of Outcome Hypothesis: Theoretical Development and Empirical Evalua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Young Hoon Lee and Jungsoo Park (2024).

“Rol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Middle-Income Trap,” *Pacific Economic Review*, forthcoming.

Jaehyuk Choi, Desheng Ge, Kyu Ho Kang, and **Sungbin Sohn** (2023).

“Yield Spread Selection in Predicting Recession Probabilitie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Journal of Forecasting*.

Eojin Yi, Biao Yang, Minhyuk Jeong, **Sunghbin Sohn**, and Kwangwon Ahn (2023).

“Market Efficiency of Cryptocurrency: Evidence from the Bitcoin Market,” *Scientific Reports*.

Donghyun Ahn, JeaSURK Yang, Meeyoung Cha, **Hyunjoo Yang**, Jihee Kim, Sangyoon Park, Sungwon Han, Eunji Lee, Susang Lee & Sungwon Park (2023).

“A Human-Machine Collaborative Approach Measures Economic Development using Satellite Imagery,” *Nature Communications*.

◎ **양현주 교수, 미국정치학회에서 Best Article Prize in the study of Democracy & Autocracy 수상**



〈양현주 교수〉

양현주 교수는 미시간대 홍지연 교수, 고려대 박선경 교수와 함께 정치학 분야의 최고 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In Strongman We Trus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South

Korea”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의 분배 정책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가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권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정치학회 수상위원회의 Amy Catalinac (NYU), Lucia Motolinia (Wash U), Steven White (Syracuse)는 본 논문이 한국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수많은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배 정책이 유권자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측면에서 모범적이며 권위주의 유산의 구성 요소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선거 경쟁, 세습 정치 및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 **전현배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선정 및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취임**



〈전현배 교수〉

전현배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6월부터 2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선정과제에서 전현배 교수는 최근 빠르게 확산된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이 음식점 성장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신

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 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역량, 연구 다양성 확보 및 연구축진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현배 교수는 또한 2024년 2월 한국산업조직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84년 창립된 한국산업조직학회는 다양한 산업의 독과점 문제, 공정경쟁 등에 대한 이론, 실증,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회는 학술지 『산업조직연구』를 발간하며 월례발표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추계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회 창립 40주년으로 12월 13-15일 서강대학교 남덕우 경제관에서 Asia Pacific Industrial Organization Conference를 서강대와 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 예정이다.

◎ **박정수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선임**



〈박정수 교수〉

지난 2023년 12월에는 박정수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새로운 국정 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정수 교수는 거시금융분과에서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난 2015~2017년 위원 활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박정수 교수는 임기 3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

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개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다.

◎ 정국모 교수, 한국은행 자문 교수 및 학술지 편집위원/부편집장 위촉



〈정국모 교수〉

정국모 교수가 '한국경제연구' 부편집장에 선임되었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한국경제와 관련된 경제이론과 정책, 그리고 각종 제도 및 여건에 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18일에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었으며, 특히 한국경제 연구에 관한 전문학회로 특화하여 현재 3,000여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심 경제학회로 발돋움하였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영문 저널(Korea and the World Economy)과 국문 저널(한국경제연구)을 발간하고 있다.

정국모 교수는 또한 한국은행 조사국 상임자문 교수로 위촉되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연구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활동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년간이다. 정국모 교수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하는 등재지 "금융감독연구"에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학술지 편집 등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 광노선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선출, 한국은행 연구용역 선정



〈광노선 교수〉

광노선 교수가 제34대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광노선 교수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통화정책 파급경로 간 관계 분석'에 대한 제목의 연구로 한국은행 연구용역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다.

◎ 이영훈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선임



〈이영훈 교수〉

이영훈 교수가 2024년 1학기부터 2년간 본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본교 발전 계획과 관련된 사항, 학칙, 대학 현장 제정 및 개정, 교육과정 운영 전반, 대학 예산 및 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는 대의

기구로 2007년 설립되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이 있으며,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조교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훈 교수는 교수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윤수 교수, 한국경제학회 KER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선임,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 Data Scientific Committee 선임



〈이윤수 교수〉

이윤수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KER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1952년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창립을 발기함으로써 출발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이론, 정책, 역

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조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의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외 경제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 및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경제학자와 외국학자들을 초빙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이윤수 교수는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 Data (CAED) Conference의 scientific committee로 선임되었다.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 Data (CAED) Conference는 다양한 주제와 학문, 국가에 걸친 기업,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여

러 학계 및 통계 기관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독특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주하연 교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선임**



〈주하연 교수〉

주하연 교수가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의 신설, 변경 및 폐지를 심의하고,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주하연 교수는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본 학회는 1984년 창립되었으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론, 실증,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한 학회이다.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여러 산업에서의 독과점 문제, 공정경쟁 등에 대한 이론, 실증, 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정기학술지 '산업조직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 **허준영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실 전문교수 위촉**



〈허준영 교수〉

허준영 교수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86년 처음 발족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 부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하여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온 금융 부문 최고의 정책 자문기구이다.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금융산업·혁신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의 총 4개의 분과에 50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허준영 교수는 자본시장분과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허준영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실 전문교수로 위촉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의 정합성과 정책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국 소속 경제모형실을 신설하였다. 모형 기반의 경제 전망과 정책 분석 능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진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선임**



〈김진원 교수〉

김진원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으로 선임되어, 2024년 3월부터 1년간 학회 운영에 봉사하게 되었다.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창립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경제학회이다. 김진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한국경제학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준비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김윤정 교수,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 위원 위촉**



〈김윤정 교수〉

김윤정 교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에서 운영하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4년 3월부터 통화정책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 회의는 금융기관, 경제연구소, 학계를 대표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퇴임 소식**



〈남주하 교수〉

남주하 교수가 2024년 1학기 강의를 끝으로 명예퇴임을 맞는다. 남주하 교수는 1990년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남주하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

시경제학 및 금융경제학으로 SSCI 및 KCI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다수의 저

서를 저술하여 한국의 금융개혁 및 금융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 **신임교수 임용**



〈백예인 교수〉

경제학과는 2024년 1학기 백예인 교수를 신임교수로 임용하였다. 백예인 교수는 2019년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국 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에서 조교수로

근무했고,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을 거쳐, 2024년 1학기 본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백예인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이고, 거시 및 금융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계량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보직교수 인사**



〈이성원 교수,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성원 교수는 2024년 3월을 시작으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앞으로 허정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과 함께 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게 되었다.

● **연구년 소식**

김도영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의 연구 학기를 마치고 2024년 1학기에 복귀하였다. 곽노선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연구 학기를 갖고 있으며, 2024년 2학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양현주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연구 학기 및 휴직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2024년 2학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현배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연구 학기를 갖고 있으며, 2024년 2학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영훈, 김홍균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6개월간, 안태현 교수는 2024년 9월부터 1년간 연구 학기를 가질 예정이다.

● **학계 동문 소식**

김슬기 동문: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박사급 연구원 임용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슬기 동문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박사급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김슬기 동문은 김영철 지도교수 지도하에 본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2023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University at Buffalo, SUNY)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취업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슬기 동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교육 및 빅데이터 실증분석이다. 김슬기 박사는 교육불평등 연구의 미국 내 석학인 Jaekyung Lee 교수(SUNY 교육대학원)의 지도를 받아 머신러닝등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불평등 연구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Applied Economics, Applied Economics Letter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등의 다수의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Fall 2023 and Winter 2024]

이기영 (2023년 9월 8일)

성균관대학교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ntegrat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이환웅 (2023년 9월 15일)

조세재정연구원

“Expansion of Cash Transfer for the Elder and Elderly Suicide Rates”

정재식 (2023년 9월 22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AI Finance”

유동훈 (2023년 10월 27일)

Academia Sinica

“Overreaction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 of the External Balance”

고동야 (2023년 11월 3일)

Osaka University

“Countercyclic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김동영 (2023년 11월 10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Economic Consequences of Access to Care: the Case of Emergency Room Visits in South Korea”

엄상민 (2023년 12월 01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Is Software Eating the World?”

주준휘 (2023년 12월 07일)

UT Dallas

“Getting the Most Out of Outline A/B Tests Using the Minimax-Regret Criteria”

Dmitry A. Shapiro (2023년 12월 8일)

서울대학교

“Noisy Product Certification in Duopoly: Theory and Experiments”

신용철 (2024년 1월 23일)

University of York

“Modelling Group-wise Spatial Dependence/Spillover”

● **남덕우기념사업회 11차 토론회**

- 시간 : 2024년 4월 5일 14:00~16:10

- 장소 : GN514

- 주제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사회자 : 송의영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발표자 :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송백훈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토론자 : 박지형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효영 교수(국립외교원), 허정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 시간 : 2024년 5월 22일 15:30~18:00

- 장소 : GN301

- 주제 :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사회자 : 이성원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발표자 : 김영철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성원(한국은행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안태현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재준 원장(노동연구원), 홍석철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52집 3호 및 53집 1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52집 3호를 2024년도 1월에, 제53집 1호를 2024년 3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52집 3호

1.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의 커버리지와 거래자의 사전반응을 통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 연구”
- 김종희(전북대학교)
2. “행복과 부패 특성에 관한 연구: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이지현(고려대학교), 최인(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 제53집 1호

1. “정보서비스산업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윤상철(단국대학교)
 2. “Does Offshoring Squeeze Out Firms? A Schumpeterian View Revisited”
- Aekapol Chongvilaivan(Asian Development Bank), Jung Hur(서강대학교)
 3. “OECD 국가 간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의 원인 분석”
- 허인(가톨릭대학교)
 4. “망이용대가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정인석(한국외국어대학교)
- “Firm Growth and Employee Earnings After Acquisitions: Linking Corporate and Worker Outcomes”



경제학부 단신

2024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 다. 선발 일정 : 6월 선발 및 7월 발표 예정

2023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이론경제학 : 이성하(20), 오승준(20), 김범수(22), 임유진(22)
- 나. 재무경제학 : 김동성(22)

2023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 -
- 나. 재무경제학 : 이서정(17)

경제학과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인원 : 33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다. 지급방식: 6/3(월) GN511에서 진행된 24-1학기 Dean's List 수여식 행사를 통해 증서와 상품(상품권) 배부

경제대학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이번 학기 휴학생 제외)
- 나. 선발 인원 : 9명
- 다. 장학금 : 학업 장려금 900만 원 (인당 100만 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2024년 경제대학 동문 선배와의 만남

- 가. 일자 : 월 9일 목요일, 6월 4일 화요일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301호(5/9), 101호(6/4)
- 다. 행사 내용
- 경제대학 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의 취업 및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동문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 김성훈 동문(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5/9(목), 재학생 45명 참석
 - 노준형 동문(UBER Freight 연구원) 6/4(화), 재학생 35명 참석

경제대학원 소식

제62회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일시 : 2024.2.20(화) 오후 4시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 다. 학위수여자 : 총 68명

전공	인원
공공경제	1
공공의회노동경제	2
노동경제	4
국제경제	5
금융경제	17
부동산경제	17
인공지능경제	7
ESG경제	15
합계	68

2024학년도 전기(67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178명
- 나. 합격 129명
- 다. 최종 등록 : 97명(신입생 94명, 편입생 3명)

67기 신입생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 2024.2.16(금) 19:00~21:00
- 나. 장소 :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 다. 참석인원 : 총 170명(신입생 97명, 재학생, 교수, 직원 등)

2024학년도 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4~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4.5.2.(목) ~ 2024.5.8(수)	2024.06.03(월) ~ 2024.06.11(화)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4.5.9(목) 17:00 까지	2024.6.12(수)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4.5.17(금) 18:30	2023.06.16(금) 18:30 부터	면접 전형일 1일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4.5.24(금) 15:00	2024.6.26(수) 15:00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4.07월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4.08.17.(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경제대학원 OLP 제26기 개강



지난 3월 21일 OLP 26기 입학식이 본교 케페르트남덕우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강하는 OLP 26기 과정은 매주 목요일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ESG 경영 및 투자, 메타버스,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흐름 등

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OLP 26기의 주요 일정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의 합숙 세미나를 실시하고 6월 27일 OLP 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춘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정규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LP 과정 소개

OLP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동문동정

- 김은희 동문(경제 97), 한화커넥트 커넥트테라스 선보여
김은희 동문(경제 97)이 이끄는 한화커넥트가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대규모 리뉴얼을 마치고 '커넥트테라스'를 선보였다. 김은희 동문은 1978년생으로 영광여고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한화그룹에 입사, 한화갤러리아 변화추진팀, 한화갤러리아 경영기획팀장, 한화갤러리아 기획부문장을 거쳐 한화역사(현 한화커넥트) 대표이사가 되었다. 사업 혁신과 신규사업 기획 추진 전문가로 손꼽히며, 한화그룹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한화커넥트의 커넥트플레이스는 서울역과 청량리역 두 역사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청량리역점에 이어 올해 서울역점을 리뉴얼했다.
- 안승근 동문(경제 88),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부임
안승근 동문(경제 88)이 12월 1일부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에 부임했다. 안승근 동문은 강원 강릉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증권감독원에 입사,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특별조사국 팀장, 기획조정국장, 기업공시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 황희만 동문(경제 7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선임
황희만 동문(경제 73)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24년부터 3년 임기 동안 협회와 케이블 업계를 이끌게 된다. 황희만 동문은 1981년 MBC에 입사, 보도국 뉴스편집 2부 앵커, LA 특파원, 정치부장, 해설위원실 부국장, 울산 MBC 사장, MBC C&I 사장, MBC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홍인표 동문(경제 96), 애니메이션 <DMZ 동물 특공대> 개봉 앞뒤

홍인표 동문(경제 96)의 첫 연출작인 애니메이션 <DMZ 동물 특공대>가 내년 2월 개봉 예정이다. <DMZ 동물 특공대>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동물들이 인간의 평화를 반대해 판문점에 몰래 폭탄 설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다룬, 액션과 코믹 장르의 3D 애니메이션이다. 홍인표 동문은 2004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 이후 영화 시나리오 및 연출 공부를 위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2012년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투신, 최근 관객 동원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각본에 참여했다.

- 정철 동문(경제 84), 한국경제연구원장 선임

정철 동문(경제 84)이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경제산업본부와 흡수 통합한 한경연 조직을 총괄하는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다. 정철 동문은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미시건대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조지아공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자문관, 한국무역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비준을 위해 활동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으로 재직해왔다.

- 김진태 동문(경제 97), 캠벨 루티엔스 한국 대표로 합류

김진태 동문(경제 97)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자문사 캠벨 루티엔스(Campbell Lutyens) 한국 대표로 합류했다. 김진태 동문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골드만삭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을 거쳐 2013년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 입사, 사모주식투자실장, 절대수익투자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태 동문은 앞으로 한국 사무소에서 국내 기관투자가(LP)와 해외 운용사(GP)를 이어주는 업무를 하게 된다.

- 이봉주 동문(경제 82), 웅진씽크빅 대표이사(CEO) 내정

이봉주 동문(경제 82)이 웅진씽크빅 신임 대표이사(CEO)로 내정되었다. 이봉주 동문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인사기획그룹 차장, 메모리사업부 인사팀장, SLSI사업부 인사팀장, DS부문 인사팀장, 사회공헌단장, 산학협력센터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1988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삼성전자에서 인사(HR) 관련 핵심 직무를 두루 맡아온 인사·조직관리 전문가로 손꼽힌다.

- 조아해 동문(경제 14), 애널리스트 다크호스 부문 4위 차지

조아해 동문(경제 14)이 1440명 펀드매니저들이 뽑은 한국경제신문 주관, 2023년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다크호스' 부문에서 증권·보험·기타 금융 분야 4위를 차지했다.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인 조아해 동문은 1994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애널리스트로 일한 경력은 3년 7개월이다. 조아해 동문의 대표 보고서로 지난해 10월에 펴낸 '금융, 새로운 길을 가다'를 꼽을 수 있다. 은행 지주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까지 심도 있게 분석한 이 보고서는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조아해 동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계인 동문(경제 82),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선임

이계인 동문(경제 82)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계인 동문은 1989년 (주)대우로 입사해 방콕지사

장, 이스탄불지사장, HR지원실장 등을 거쳐 2019년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품소재본부장, 철강1본부장, 트레이딩부부장, 글로벌사업부부장을 역임해왔다.

- 김성태 동문(경제 94),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로 선임

김성태 동문(경제 94)이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성태 동문은 2009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사해 거시경제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부 부장, 경제전망실 실장,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 등을 거쳐 두산경영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을 역임했다.

- 오상훈 동문(경제 84),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5대 이사장 선출

오상훈 동문(경제 84)이 2월 27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오상훈 동문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상무), 삼성화재해상보험 미국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6년 차헬스시스템스 USA(CHA Health Systems USA) 대표이사를 맡아 미국 내 차병원 의료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총괄했다. 2019년 차바이오텍 대표로 취임해 제반 사업 부문의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영권 동문(경제 83), 신한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 추천

최영권 동문(경제 83)이 신한금융지주의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되었다. 최영권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이자산운용·동양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냈다. 신한금융 측은 최 후보자가 "혁신성장 기업과 친환경기업 투자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등 대체투자와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정통한 것이 추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 김기현 동문(경제 85),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

김기현 동문(경제 85)이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기현 동문은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증권부문 총괄 CIO(최고투자책임자) 부사장이자, 김기현 동문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1991년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첫 발을 댄 이후 한화경제연구원 증권금융팀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등을 거쳤고, 삼성증권에서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삼성투신운용(현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알리안츠인베스터스 채권운용팀 펀드 매니저 등을 거친 뒤 2005년 키움운용의 전신인 우리

자산운용에 합류했다. 2020년 12월까지 키움투자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했고 2021년 1월부터 신설된 키움운용 증권부문 총괄 CIO 자리에 올랐다. 동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본부장과 선임연구원을 거쳐 부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대학,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3.09.01.~2024.2.29)

학부 동문 문용호, 유경윤, 이철순, 이택수, 정진화, 홍우재, 황대하
교직원 곽노선, 김영익, 김종화
서강의 벗 CJ, 아샘자산운용(주)
대학원 OLP 25기, 성대영(위더스제약(주)), 홍성열(마리오아울렛)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